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Taobao.com, 2017년 전자상거래 시장점유율 17%로 1위



물류정책·산업동향

1. 싱가포르, 전자선하증권 시범 프로젝트 TradeTrust 착수 예정
2. APMT, 코스타리카 모인에 리퍼하브 오픈
3. CMA CGM, 올해 12억 달러 수준 비용절감 전략 추진
4. 블록체인 통해 다양한 식품분야에서의 안전성·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명사 스피치

“현재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이 자동화 항만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자동화 항만 도입 배경과 실익이 상이하므로 무조건적인 자동화 추진보다는 우리나라 항만물류산업 현실과 자동화의 실익을 면밀히 살펴본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2019. 3. 12. / 물류신문 인터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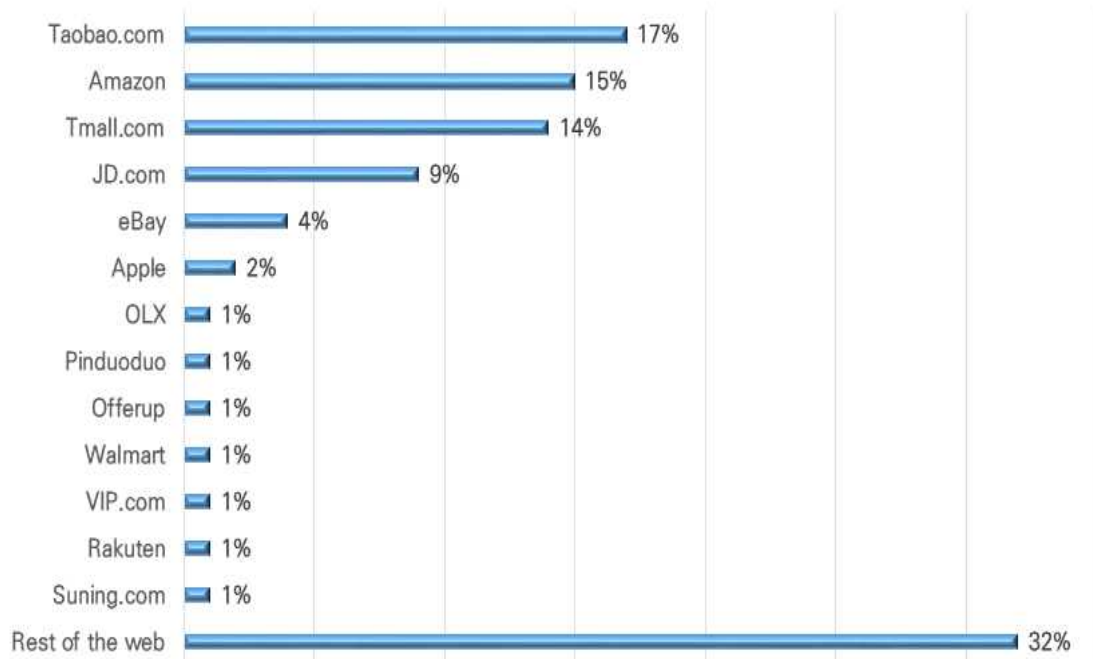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Taobao.com, 2017년 전자상거래 시장점유율 17%로 1위

전 세계 전자상거래 점유율



자료 : www.statista.com

- 2017년 기준 전 세계 주요 전자소매 업체 중 Taobao.com의 전자상거래 점유율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Taobao.com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오픈 마켓으로 중화권 소비자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
- 다음으로 Amazon이 15%, Tmall.com이 14%의 점유율로 각각 2위, 3위를 기록함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인 중국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Taobao.com, Tmall.com 및 JD.com 등이 세계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음

참고자료 : www.statista.com

김병주 연구원

051-797-4784, bjkim17@kmi.re.kr



물류정책·산업동향

싱가포르, 전자선하증권 시범 프로젝트 TradeTrust 착수 예정

- 싱가포르가 종이 기반의 선하증권(bills of lading, B/L)을 전자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9년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임
 - 3월4일에 발표된 이 시범프로젝트는 TradeTrust라고 불리는데, 이 프로젝트는 컨테이너선박이 항만에 접안하고 하역할 때 발생하는 지연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선하증권은 합법적이고 상업적인 정보가 담긴 국제 무역의 주요한 문서임
 - 전자 선하증권(e-B/L)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이 개정될 것임
- 싱가포르는 종이 문서 사용으로 인한 사기 위험뿐만 아니라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운업계에서 전자 문서의 수용을 가속화할 것을 원함
- 정보통신부 장관인 S. Iswaran씨는 의회연설에서 TradeTrust 시범 프로젝트가 무역 및 물류 분야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싱가포르 매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함
 -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 및 기타 정부 기관들은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폭 넓게 업계와 협력하고 있음
 - Iswaran 장관은 "TradeTrust는 기업들이 디지털 무역 문서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일련의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니셔티브"라고 말함
- 또한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 Maritime and Port Authority)은 해상 및 무역 산업을 위한 전자 무역 문서용 상호 운용성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임
 - MPA는 IMDA와 함께 일하면서, 업계의 서로 다른 디지털 생태계가 효율적인 전자 거래 문서 교환을 단절없이 원활하게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기대함
 - 이 작업은 일련의 거버넌스 및 법적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 및 상호 작동 가능한 디지털 조력자 등의 개발을 수반할 것임
- e-B/L의 사용으로 소유권 증서를 이전하는 행정절차 시간을 5일내지 7일에서 단 1초로 감소시킬 수 있음
 - TradeTrust는 지난 10월 싱가포르 컨테이너 선사인 Pacific International Lines Ltd (PIL)사와 IBM Singapore사와의 협력으로 출시된 블록체인 시험판의 결과로 나온 것임

참고자료 : safety4sea.com, 2019.3.5., straitstimes.com, 2019.3.4., porttechnology.org, 2019.3.7.

이연경 부연구위원

051-797-4682, eklee@kmi.re.kr

APMT, 코스타리카 모인에 리퍼허브 오픈

- APMT는 최근 코스타리카 모인(Moín)에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을 오픈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대서양 루트를 이용하던 유럽 및 아시아항 화물들은 더 이상 환적이 필요 없게 됨
 - 모인 터미널은 40헥타르의 인공섬에 건설됐으며, 총 투자규모는 10억달러임
 - 코스타리카는 현재 세계 최대의 파인애플 수출국이자 세계 3위 바나나 수출국으로, 리퍼기능 확보는 코스타리카 컨테이너 교역의 필수 요소임
 - 모인 터미널은 650m 길이의 선석과 26,000TEU 처리능력의 CY를 보유하고 있으며, 3,800개의 냉동 컨테이너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 모인 터미널의 오픈으로 코스타리카의 해운 연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모인 터미널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많은 선박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모인 컨테이너 터미널과 연결되는 해운노선의 수가 285%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모인 터미널은 안전 및 보안 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신 기술 장비도 구비함
 - 모인 터미널은 현재 중남미에서 가장 현대적인 화물검사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음
 - 이 밖에 1억 1,000만달러를 투자해 6기의 갠트리 크레인과 29기의 야드 크레인을 마련했으며, 시간당 평균 180회(moves)의 하역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선박당 평균 하역시간은 기존의 40시간에서 15시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 <https://www.apmterminals.com/> 2019.2.28.

김은우 전문연구원

051-797-4680, hisgrace@kmi.re.kr

CMA CGM, 올해 12억 달러 수준 비용절감 전략 추진

- 글로벌 해운선사 CMA CGM이 2018년 기록적인 매출액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억 규모의 비용절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 '글로벌 플랜(Global Plan)'이라고 불리는 이 전략은 기업 운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선 라인과 브랜드의 최적화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
 - CMA CGM은 2019년이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무역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수익성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여 12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계획을 실행 할 것이라고 밝힘
- CMA CGM은 2018년 한해 기록적인 매출액과 물동량을 달성함
 - 2018년 234억 8,0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 매출 211억 2,000만달러 대비 11.2% 증가한 수치임
 - 또한 창사 이래 2,000만TEU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는 실적을 보임(전년 대비 9.3% 증가)
 - 이러한 매출액 달성은 운영 중인 대부분의 노선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태평양, 인도/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노선에서 두드러짐
- CMA CGM은 다양한 혁신적 전략을 통해 고객만족과 기업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 블록체인과 관련한 파트너십 계약뿐 아니라 IoT 및 인공지능 개발을 통해 기업 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
 - 또한 2018년에는 창업지원과 인력개발을 위한 센터인 'ZEBOX'를 설립하고 전 세계 15개의 start-up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올 2월에는 스위스 물류업체 CEVA logistics를 인수했으며¹⁾, 이를 통해 10만명 이상의 임직원 규모와 30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기대하고 있음
 - CEVA logistics와 서비스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운영효율 제고 및 비용절감에 있어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새로운 비용절감 계획에 포함될 예정임
 - CMACGM은 현재 2,700만TEU 규모의 선복량(500여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45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 중에 있음

■ 참고자료 : World Maritime News(<https://worldmaritimenews.com>), 2019.3.8.

김보경 연구원

051-797-4674, kimb@kmi.re.kr

1) 2019년 2월 CEVA logistics 인수에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았으며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블록체인 통해 다양한 식품분야에서의 안전성·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 이번 달부터 프랑스 식료품점 까르푸(Carrefour)에서는 우유에 대한 새로운 블록체인 구동 제품을 출시할 예정임
 - 해당 제품은 까르푸 퀄리티 라인(Carrefour Quality Line)으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급망 추적시스템을 미세 여과한 우유에 적용시킨 것임
 - 우유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from farm to store shelves)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완벽한 추적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함
- DNV GL과 Deloitte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류 공급체인을 추적함으로써 양식 산업 등 수산업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함
 - 이 보고서에서는 ‘미끼에서 접시까지’(bait to plate) 공급체인 전체에 대한 정보가 공공으로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에 저장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해당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성 및 식품 안정성에 대한 공공, 산업, 소비자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기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은 양식장, 어류 복지, 사료 및 수질 구성 등 생산단계에서의 정보부터 가공, 운송, 소매점까지 모든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 라벨(smart label) 스캔을 통해 확인 가능함
 - 양식용 어류일 경우 양식장, 근로자의 복지 시설, 어류의 복지 수준, 사료의 질, 수질 등에 대한 정보를 양식업자가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록함
 - 자연산 어류에 대해 기록되는 정보는 어선의 위치, 어획방법, 온도 및 습도 등 어류 저장 조건에 관한 것임
- 공급망 투명성 제고를 통해 회계 감사의 효율성 및 공급망 주체 간 이해도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금융기관과 보험회사에서는 추적 시스템을 통해 산업의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맞춤형 금융 및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됨
 - 또한 해당 시스템은 공공 행정 기관의 라이선스 관리 및 모니터링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 www.foodlogistics.com, 2018.3.8., safety4sea.com, 2018.3.8.

조지성 전문연구원

051-797-4916, jisungjo@kmi.re.kr